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11.(수)	**사진 · 영상**	사진(o),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11일(수)부터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현미**	☎044-300-7039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재정 책임 강화 · 공동 대응 촉구

- 조직위 자체수입 확보와 지출 점검 강조…4개 시도 공동 대응체계 구축 제안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재원 확보와 추가 사업비 논란을 지적하며, 조직위원회의 재정 책임 강화와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 세종·대전·충북·충남이 공동 유치한 이번 대회가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회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약 37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거론되고 있다며 재원 확보 현황과 추가 비용 발생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위원회의 후원 목표액은 300억원이지만, 11월 2일 기준 확정 후원액은 142억원이며 이 가운데 현금은 12억 1천만원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실제 계약이 완료된 금액도 28억 6천만원 수준이라며 후원 목표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수익사업으로 현금 262억원을 확보하고 전체 운영비 예산을 654억원 절감한 사례를 제시했다. 조직위원회도 후원 계약을 확정하고 기업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별 지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직위원회의 자체수입 확보와 지출 구조조정 책임 강화 ▲충청광역연합과 연합의회, 4개 시도 및 의회, 조직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협의체 구성 ▲세종시의 분담금 삭감 요구보다 후원 기업 발굴과 국비 확보 협력, 시민 참여 확대 등 공동 개최도시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재정 문제에 대응하면 협상력이 약화하고 재정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동 대응협의체를 통해 개최 계약과 재정부담 협약을 검토하고, 후원 실적과 추가 사업비 발생 요인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존 협약에 따른 공동 개최도시의 책임을 강조하며, 당장의 분담금 삭감보다 추가 재정부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원 확보와 대회 준비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